

20주년 앞둔 문예재단 중기 전략 살아남나

2020~2024년 5개년 계획 첫해 전략 실행 행보 감감 단기·중기 조직 개편 제시 코로나 속 예술인복지팀 등 설치시기 검토 등 재고 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2020~2024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번 중기전략은 2001년 설립된 재단의 현재와 변화 지점을 진단하고, 사업 추진 전략과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중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평균 2년에 한번 꼴로 새로운 이사장을 맞았

다. 시기별 전략 수립은 수장의 관심사에 따라 매년 조직의 바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측가능한 시스템으로 기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중기 전략임에도 재단의 밑그림보다는 개별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긴 했으나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단기, 중기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이 보고서에는 단기 조직(2020~2022년)과 중기 조직(2023~2025년) 개선안이 들어있다. 단기 조직안은 경영기획본부(전략기획·정책팀, 경영지원팀, 재무관리팀)와 문화사업본부(예술활동지원팀, 문화예술교육팀, 생활지역문화팀, 공간문화팀(사업단)) 등 2본부 7팀을 제시했다. 중기 조직은 문화내일본부(문화예술교

육팀, 미래문화준비팀, 지역·문화하이브리드)와 예술협력본부(창작지원팀, 예술인복지팀, 예술마케팅팀) 등 2개 문화예술사업본부와 경영기획실(전략기획정책팀, 커뮤니케이션·IT팀, 경영지원팀), 공간문화실(공간운영기획팀, 문화최근성팀, 행정지원팀) 2실에 걸쳐 총 12팀을 두는 안이다.

이번 추진 전략의 시작 연도는 2020년이지만 현재 이르면인 보고서로 남아있다. 더욱이 9대 이사장이 지난 1월 초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재단 내부에서는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 등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해당 추진 전략의 실행 여부와 별개로 보고서에 수록된 안이 현 상황

과 맞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밀어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예술인복지 등 역점 사업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술가 우선 케어시스템 개발' 등을 맡을 예술인복지팀 신설을 2023년 이후 중기 조직안에 담았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그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중기 추진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관련 신임 이승택 이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팀을 만드는 건 인력,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뒤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면서 "오는 7월말까지 경영진단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조직 개편은 그 추이를 보고 중기 전략을 참고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새 20년 준비... 판 만들 기획 집중”

이승택 문예재단 이사장 “도·행정시와 협의회 추진 재밌심 향방 집담회 후 결정”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반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더해 새로운 2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2021년 재단 20주년을 앞두고 10대 이사장으로 조직을 이끌게 된 그는 10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승택 이사장은 이날 현장, 소통, 기획을 키워드로 임기 내 비전을 풀어갔다. 특히 그는 자신이 현장에서 문화 기획자로 활동해온 점을 여러 차례 꺼내며 ‘판’을 만드는 기획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단 내부 기획팀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제주도 문화정책까지 생산해내고

싶다”며 “원포인트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시와의 협의 강화도 제시했다. 그는 “문화정책이나 사업이 큰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맥락을 찾아가도록 재단이 매개체가 되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제주도, 행정시 부서와 협의회를 꾸리겠다”며 “예비문화도시 제주시, 문화도시 서귀포시 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문화예산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단 예산이 전년

보다 10% 줄었는데, 관광이 잘되면 문화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예산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재단의 현안으로 꼽히는 가장 ‘한 것’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5회 정도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열었고 도민의 뜻을 모아가는 집담회가 남아있는데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라며 “집담회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타당성 검토위에서 공유되면 그 이후에 결론이 난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2020 체플린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주말 체플린 뮤직 페스티벌 제주팝스 등 5팀 공연 펼쳐

소극장 활성화 내건 음악 축제가 마련된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와 체플린소극장이 주관해 이달 12~13일 이틀동안 펼쳐는 ‘2020 체플린 뮤직

페스티벌’이다. 이번 축제는 소극장의 이점을 살려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소통 공연으로 기획됐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음악단체를 초청해 청중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끈다.

첫날 오후 7시30분에는 제소, 제주팝스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둘째날 오후 7시30분엔 여유와 설민, 피오레, 소리떼가 저마다 빛깔있는 무대를 꾸민다.

주최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청중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연 전 관객 발열 체

크, 입장 시 손 소독을 해야 한다. 객석 간 거리두기도 시행된다.

공연은 ‘감동후불제’로 치른다. 수익금은 제주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공연이 열리는 체플린 소극장은 제주시 아라동(제주시 중앙로 491 지하 1층)에 지난해 개관했다. ‘경량화’ 기획 공연으로 제주 공연문화의 문턱을 낮추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는 기존 정형화된 오케스트라의 이미지를 벗어난 쉽고 편안한 무대를 이어왔다. 제주팝스오케스트라 공연 프로그램은 자체 작·편곡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시(詩)로 읽는 4·3 (62)

만병디 하늘을 향해

김진숙

눈물이 해피지는 걸 보면 저들도
아는가 봐
영문도 알지 못하는 총질 창질이
부끄러워
먼 마을 토종개들도 옥타브를
낮추고

듣는 사일
만병디 하늘을 향해 가지 끝을
세우네

관세음 천수로도 닿지 않은 길이
있어
나무도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길에
욕심 년 목젖이 붉은 글썽새를
보았네

만병디는 넓은 들판이되 현무암 덩어리가 사방에 퍼져 있어 땅이 도드라진 자리이다. 1950년 8월 4일 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 검속된 사람은 820여명이다. 8월 20일 (음력 7월 7일) 집단 총살되거나 수장 당했다. 그날은 칠월칠석(七月七夕)이다. 은하수의 양 끝 독에 살고 있는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 칠석이다. ‘만병디묘역’은 첫알오름에서 학술된 시신을 1956년 3월 30일 수습해 조성한 묘역이다.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예비검속자는 총 344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252명이 군(海병대)에 송치되었다. 유족들이 몰래 모여 칠성판, 광목, 가마니를 준비하고 새벽 2~3시경에 첫알오름으로 트럭을 몰고 가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해병대 제3세대 대원들은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예비검속자들을 첫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총살은 두차례 이뤄졌다. 모솔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오전 5시에, 한림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같은 날 오전 2시에 총살됐다. 총살 당일 유가족들이 몰려들어 시신을 수습하려 했다. 군인들이 제지해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만병디묘역에 묻혀있는 이들은 한림항 어업조합 창고, 무릉지서 창고에 갇혀있던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만병디묘역에는 현재 46위가 안장돼 있다. 만병디묘역의 터는 유족 중 한 명이 무상으로 내놓았다. 당시 유족들은 머리 모양이나 치아, 썩지 않고 남은 옷, 소지품 등으로 일부의 시신을 구별했다. 나머지 132구는 백조일손지묘에 모셔져 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문화가 쫓지

코로나 후 아트페어 논의

제주아트페어를 주관해온 비아트가 이달 13일 오후 2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 지점 VIP라운지에서 ‘포스트코로나의 아트페어와 지역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SNS로 생중계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경은 전 제주현대미술관장의 ‘제주 지역 미술계의 지형’,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의 ‘브리즈아트페어의 운영 사례’에 대한 발제 등이 이루어진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신규 모임이나 단체, 일정 기간 활동 경험이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교육, 제작,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규단체는 6월 19일까지, 활동단체는 6월 22~27일 3일 접수를 진행한다. 문의 735-0615.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빙스 | 오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p>BD-AFE50N</p>  <p>생활방수 3년무상A/S</p> <p>₩299,000 ₩229,000</p>	<p>BD-N443(리모컨)</p>  <p>방수비데</p> <p>₩299,000 ₩259,000</p>
<p>BD-AE91</p>  <p>방수비데 (3Way 노즐)</p> <p>₩269,000 ₩229,000</p>	<p>BD-CD51N</p>  <p>방수비데 (원적외선 건조) 보상판매</p> <p>₩299,000 ₩229,000</p>